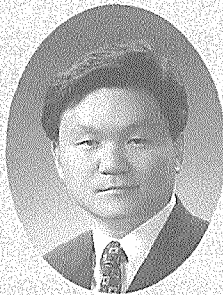


## 국내 정유산업의 미래



허은녕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조교수 / 자원환경경제학 박사 〉

2000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지난 몇 년간은 국내 정유산업에게 정신없이 바쁜 기간이었다. 1997년 1월 국내석유가격 자율화와 석유제품 세금인상, 1997년 11월 외환위기로 인한 가격 급등 및 수요 급감, 1998년 이후 LPG 소비 증가와 수송용 석유제품간 세금조정논의로 인한 수요불안, 그리고 1999년과 2000년의 국제유가 급상승위기까지 여러 분야의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여야 했다. 이러한 최근 몇 년간의 변화는 국내 정유산업이 이제 경제발전과 함께 안정된 성장을 이루어온 시대를 벗어나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변화의 조짐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유업계의 올바른 대비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21세기의 에너지산업 형태의 가장 큰 주류는 바로 '종합' 에너지산업이 될 것이다. 석탄과 석유, 그리고 전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지난 시대들과 달리 특

정 연료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여러 에너지원들이 서로 종합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바로 환경문제의 확대에 의한 제약이다. 기후변화협약으로 대표되는 국제협약을 통한 선진국의 화석에너지 사용 규제와 NGO를 중심으로 한 환경운동의 확대에 말미암아 화석연료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마땅히 석유 및 석탄이 그 동안 하여온 역할을 충분히 대체할 에너지원이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 비록 석유 및 석탄의 주도권이 약화되어가겠지만 그 정도는 아주 작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특히 석유는 석탄과 달리 그 사용처가 연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비록 연료로서의 입지가 약해지더라도 정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분명히 정유산업의 미래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최근의 또 다른 변화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자율화가 확대되면서 많은 수의 정유회사 및 에너지생산회사들이 판매 및 유통산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경우 자본을 가진 은행과 협력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에너지회사와 연계, 국제적인 유통망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석유 및 가스부문에서는 운송 및 거래부문에, 전력부문의 경우 특히 발전부문에 이은 배전부문의 민영화로 배전부문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 정유회사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해결책은 바로 종합에너지산업으로의 사업다각화 및 새로운 수익사업으로의 사업 다각화이다. 국제경쟁력을 위하여 사업범위 못지 않게 사업규모 또한 키워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에너지 산업의 민영화 및 해외진출 지원이다. 국내정유업체가 국내 에너지 산업 중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민영화와 가격자율화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고려할 때 민영화 대상 산업인 전력 및 가스산업으로의 진출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상 등으로 인한 환경규제에 대비, 상대적으로 청정한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처리분야로의 진출 및 LPG생산시설 확대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사업부분이라고 하겠다. 또한 중국 등 해외로의 정유업 진출과 에너지 관련 플랜트 및 기술의 수출, 그리고 해외유전개발사업에의 참여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리스크를 감소시켜 궁극적인 정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대가가 큰 만큼 그 위험도가 높고 초기투자비가 매우 크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타에너지사업 진출의 수익성 여부는 결국 정부의 에너지관련 장기정책이 어떻게 세워질 것이며 또한 세워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또 다른 추천 사업다각화 업종은 에너지 산업이 가지는 위험이 없거나 이와 다른 성격의 위험을 가지는 업종이다. 환율의 변동을 타지 않는 업종인 서비스업과 전통문화 관련산업, 그리고 환율상승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수출무역업을 들 수 있으며 국내 정유업체의 경우 대부분 계열기업의 형태로 이미 이들 산업에 진출, 그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다각화를 제대로 이루려면 우리나라 정유산업은 먼저 국제경쟁력이 있는 전문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하여야 한다. 국내 정유업체는 아직까지도 미국 및 유럽의 석유메이저들의 한국지사라는 예전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로 국내 정유회사들이 국제시장 및 국내수급 상황에 대한 자체 분석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함에서 기인한다. 국제시장의 상황이 변동을 거듭하고 있는 지금, 언론에서의 국제유가 전망은 모두 외국 분석기관이 독차지하고 있다. 국내 석유관련기관으로는 정유회사들과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공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있으나 국제 석유시장 및 산업분석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규모와 수준은 97%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나라의 규모라고 하기에는 너무 모자란 수준이다. 자주적인 분석능력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올바른 대책과 훌륭한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이루기 힘든 목표가 되고 만다.

따라서 국내 정유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통신산업이나 자동차산업과 같이 자체적인 산업여건 분석능력을 가진 부속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정유회사들의 대변인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대한석유협회가 이러한 역할에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보인다. 즉, 대한석유협회가 국내 정유업체의 think tank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미국의 석유협회 격인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의 경우 think tank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와 쌍벽을 이룰 만큼의 산업 및 시장분석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석유관련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학술지에 EIA와 API의 자료간의 차이점에 대한 논문이 실리는 정도이다.

또한 API가 하고 있는 업무 중 각종 석유관련 산업기

준(standard)의 정립과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및 인증 업무 등은 우리 나라 정유업계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여야 할 사업영역으로 보인다. 특히 품질 인증의 경우 주유소들의 가짜 휘발유 및 타사 휘발유 판매로 인하여 국내 정유회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일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정유업계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유통업계의 품질검사 강화를 통하여 수입하는 정유제품에 대하여 품질위위 확보와 품질에 대한 신뢰도 확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저유시설과 공동 물류단지, 그리고 송유관시설의 확충 등으로 물류비용을 줄이며, 정보관리체계의 신속한 도입을 통한 보다 과학적이고 신속한 유통구조 운영으로 국제경쟁력을 성취해야 한다.

경쟁력 향상방안 중 국내 석유업계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중·단기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서 위험요인 관리를 통한 원유도입비용의 안정이 있다. 원유도입비용은 크게 국제원유가와 환율이 주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국제원유가는 안정되어가고 있으나 이번에는 외환이 변동하고 있다. 국내 정유회사들이 국제 석유시장 변동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위험부담으로 인한 원가상승은 매우 클 것이다. 석유류 재고의 적절한 관리기법의 개발, 국제원유의 현·선물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헤징 등의 위험분산 기법 이용 등으로 기업이 안고 있는 국제원유가와 환율의 변동 등에서 오는 위험요인들을 대폭 줄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부담의 감소는 정유산업의 원가 절감 폭을 크게 해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분석하고 석유시장의 환경변화를 평가할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다시 한번 전문 분석기관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현재의 가격결정구조는 정유업계가 국가를 대신하여 국제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유업계로는 이러한 위험

부담비용을 가격에 추가로 반영시켜야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한다 하겠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부담비용을 석유제품가격구조에 반영되도록 하여 국내정유업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손실 분을 막아주어야 할 것이다. 가격경쟁은 좋으나 수익성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과다경쟁은 결국 기업부실화로 이어지게 되고 자칫하면 기업 도산과 신규기업 진입비용 등 막대한 구조조정비용을 사회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시장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위험부담비용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면 정유업계는 자구노력으로 인한 위험부담경감이 회사의 수익으로 돌아오게 되어 위험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증가시킬 것이며 국가로서는 위험 발생시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정유업계는 스스로 적절한 가격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1994년 이후 국내석유제품가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휘발유의 경우 정유회사의 공장도 가격(세전)이 1996년 이후 원유도입가격과 일정한 관계를 보이는 이른바 원가에 따른 가격결정구조방식을 보였다. 이는 휘발유의 경우 국내정유회사들이 나름대로 공정한 가격결정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보기로 사용될 수 있겠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정유회사의 가격결정방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으며 이는 대부분 가격결정구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기에 이점에 대한 홍보가 또한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아마도 국내정유회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들이라 생각된다. 문제는 그 실천방법 및 실천시기일 것이다. 21세기는 분명히 정유업계에 많은, 그리고 새로운 과제들을 가지고 다가올 것이다. 외국에 많이 의존하는 현행 체제에서 빨리 벗어나 이러한 과제들을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천과제이다. 스스로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밝은 미래가 약속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 정유업계의 전투를 빈다. ☉